

리니언시와 면죄부



김승호의
시선

제지업계 국내 1위인 H사는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2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맞았다. 업계내 5개사와 함께 인쇄 용지 가격을 담합한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H사 뿐만 아니라 M그룹 계열사 3곳도 담합에 가담해 총 138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H사, 세곳의 M사 등 6곳의 제지회사에 내려진 과징금은 총 3383억원에 이른다.

이들 제지사의 담합 과정은 아주 치밀했다. 개별 회사 관계자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 기 위해 경쟁사를 이니셜로, 담당자 연락처는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종이에 가명 등으로 메모해 사용했다. 연락할 땐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 등을 이용했다. 적어도 60회 이상 회합한 과정은 첩보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많은 돈이 부과됐던 H사는 이후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M사 역시 총 517억원을 면제받았다.

‘자진신고감면제’로도 불리는 리니언시 제도의 덕을 봤기 때문이다. H사가 1순위, M사가 2순위로 자진 신고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사이 공정위는 ‘은밀한 담합’을 포착한 직원에게 포상까지 했다. 리니언시로 인해 당초 3383억원이었던 과징금이 1441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는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

리니언시를 이용한 기업들의 과징금 회피는 이번 인쇄용지건 뿐만 아니라 설량 담합, 밀가루 담합 등 최근 사례만해도 적지 않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라는 정부의 성과 뒤엔 늘 ‘엄청난 과징금 감면’이라는 기업의 성과가 보란듯이 뒤따른다. 같이 담합을 하고도 약삭빠르지 못한 기업만 고스란히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다.

현행 리니언시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담합으로 돈을 버는 곳은 짜고 치는 기업들이다. 이들의 담합으로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다. 제지사들의 인쇄용지 담합으로 종이값은 3년 10개월동안 71%나 올랐다. 피

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인쇄용지 값이 오르면서 단행본, 교과서, 잡지 등을 사는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더 높은 가격에 용지를 구입, 인쇄해 납품한 중소기업들도 피해자다.

그런데 담합으로 많은 돈을 번 기업들은 잘못을 하고도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를 인식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지난해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7년부터 도입한 리니언시가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이 담합해 결국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뒤에선 웃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같은 것인진 모르겠다.

/bada@metroseoul.co.kr

‘내 정보는 이미 털렸다’는 체념



기자수첩

조민선의
(IT부)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낯선말이 아니다. 누구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사고는 언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보안 원칙이다. 기업은 끊임없는 검증 통해 각종 자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보안 유지에만 수조원이 드는 이유다.

그런데 정작 보호 대상인 개인은 ‘정보 제공’을 가볍게 여긴다.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는 것을 단순한 과정으로 치부한다. 택배 송장에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 이름까지 적혔지만 굳이 제거하지 않는다. 지난 한해 통신 3사에서 발생한 조유의 해킹 사건을 두고는 ‘내 정보는 벌써 중국에 있다’며 자조 섞인 농담도 나왔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해킹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

2008년 개인정보 약 1800만건이 유출된 이커머스 옥션 해킹 사건,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3500만), 최근 SK텔레콤(2700만), 쿠팡(3750만)까지 모두 중국인 또는 중국 국적의 해커 소행으로 밝혀지거나 이들이 배후로 지목됐다.

한국은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보다 공공의 목적을 우선하는 인식이 강했다. 대표적인 예가 주민등록번호다. 군부 정권 당시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12자리 주민등록번호를 전국민이 갖게 됐다.

인터넷이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즈음 교육청이 포털 사이트 가입을 강제해 학생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를 적어 제출하게 했다.

이달 시행한 휴대폰 안면인증 제도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추진된 것 또한 오래 지속된 집단주의적 인식의 연장선이다. 국민의 금전적 피해를 일으킨 대포폰 개통 및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지는 취지지만,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 스캔 과정에서 얼굴 영상을

한번 더 촬영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은 이보다 빠른 2019년에 안면 인식을 의무화했다.

다만 정보 주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2011년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대전제는 내 정보를 타자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결정과 통제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번 안면인증제 또한 시행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산하 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가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일부 반영하겠다고 했다.

해킹을 완벽히 막을 기술은 아직 없지만 최소한 예방은 가능하다. 내 정보는 이미 털렸다는 체념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의지가 필요한 때다.

/msjo@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 (음 6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 보도록 하세요. 60년생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72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세요.



49년생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61년생 하루하루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둡니다. 73년생 귀하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85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입니다.



50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합니다. 62년생 수술하면 암종류이고 상복수 있겠습니다. 74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하도록 하세요. 86년생 아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1년생 용기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을것입니다. 63년생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7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87년생 말 조심 몸 조심하세요.



52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4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76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집니다. 88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53년생 평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65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77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의 것을 잘 간수하세요. 89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54년생 엔지 불길한 징조가 있습니다. 매사에 주의하세요. 66년생 조용히 근신하세요. 78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습니다. 90년생 귀인을 만나려면 동쪽으로 가세요.



55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세요. 67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9년생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91년생 음식을 삼가 해야 합니다.



56년생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것입니다. 68년생 조금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0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92년생 남을 돕는 것이 길합니다.



57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지출이 있게 됩니다. 69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81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93년생 무엇을 하든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58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70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82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94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알찬 열매를 맺습니다.



59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71년생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83년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세요. 95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다시한번 돌아보세요.



김상회의四季

원진살 중화방법

백년해로하는 부부들은 대단한 인연이다. 인간사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고 전통적인 결혼은 아내, 여자의 인내와 인고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하였기에 과거 시대에는 백년해로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요즘은 참으면 바보인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여성들 처지에서는 다행인 것인지 아닌지 좀 생각이 많아진다. 촌수가 무촌이라는 부부는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쌍방에게 고통이 된다. 배우자에게 성실치 못하여 바람을 피우거나 경제적 무능력으로 파탄이 나는 경우가 부부 파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실은 싸움이 일어나도 그 서운함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도 감정이 극한을 달려서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이 앞섰다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한 번쯤 공감해 봐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선 너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판단과 비난을 하는 말로 일관되니 관계가 극한을 달려서 화합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꼭 부부지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5년 전에 갑자기 결혼하게 된 아들의 공합을 보러 온 K여사의 아들과 며느릿감 공합은 추천할 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가씨 쪽의 적극적인 태도로 결혼이 성사되었었는데, 당시 필자가 우려를 표한 대로 안타깝게도 이혼의 처지가 되었다. 일단 부부지간에 원진살이 있으면 주말부부나 해외 근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매일 싸움으로 날밤을 새우기도 한다. 아가씨 일주가 입술로써 백호 살이 있기도 했지만, 돼지띠에 배우자 자리에 원진살(兇鎗殺)이 있어 부부가 원수지대 지내는 기운이다. 이런 경우 남편이 지방 근무나 해외 근무라면 그렇지않 지낼 수도 있다. 딸싸움이 심해져 극단을 치닫게 된 경우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신상품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3				7
9			1		5	6	
			9				
	4				2		1
2							4
	7		5				9
					1		
		2	7		8		5
3				9		2	6

결합형스도쿠

15.3분

8		3	9					5
9						2		6
					2		9	
			4		5			
	7	1				8	3	
				7	8			
3		9		5				
	4	7				9	6	7

결합형스도쿠10

15.3분

9	2	2	6	9	2	1	8	8
9	8	1	8	9	2	2	6	2
6	8	2	1	8	2	1	9	9
8	6	2	8	2	9	9	2	1
2	9	8	2	1	8	6	9	2
2	1	9	2	6	9	8	2	8
8	9	8	9	2	6	2	1	2
2	2	9	9	2	1	8	8	6
1	2	6	2	8	8	9	2	9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로 고나이드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9	6	8	8	2	2	9
6	2	9	1	2	9	2	8	8
8	8	2	2	9	9	6	1	
2	9	1	8	8	2	6	9	2
9	8	8	9	6	2	1	2	2
2	2	6	9	1	2	8	8	9
8	6	8	2	9	1	2	9	2
9	2	2	8	8	9	1	6	
1	9	2	2	9	6	8	2	8